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고구려의 보덕이 방장을 백제로 옮긴 까닭은?

도교 중시 고구려 종교 편향에 패망 감지

1. 열반경과 방등교의 대가

한반도와 대륙에 걸쳐있었던 고구려는 사국 중 제일 먼저 불교를 공인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중심은 만주의 요서와 요동 지역에 있었다. 때문에 불교 공인 이후 고구려의 불교사찰은 만주 일대에 개창되었다. 그때 만주 지역에 분포되었던 고구려의 사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남경이었던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수도 집안(국내성)에는 더 많은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의 아들인 장수(長壽)왕의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중심은 평양으로 옮겨졌다. 해서 양(梁)나라 남경에서 활동했던 삼론학의 승랑(僧朗)과 달리 평양 천도 이래 수도(平壤)에서 활동했던 지론학의 의연(義淵) 이후 고구려 후기의 보덕(普德)은 열반학과 방등교의 대표적 고승이었다. 각운(覺韻)의 『해동고승전』에는 “보덕의 자(字)가 지법(智法)이며 이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외곽의 용강현(龍岡縣) 출신이다”고 하였다. 일연은 보덕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아래의 본전(本傳)을 보라고 하였다.

보덕은 늘 평양성에 머물렀는데 어느 산방(山房)의 노승이 와서 강론해 주기를 청하였다. 대사는 굳이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열반경』 40여권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끝난 뒤에는 성의 서쪽 대보산(大寶山) 바위굴 아래에서 참선을 하였다. 하루는 어떤 신인(神人)이 와서 ‘이곳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면서 석장(錫杖)을 앞에 놓고 가리키며 ‘이 밑에 8면의 7층 석탑이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땅을 파보니 과연 탑이 있었다. 보덕은 그곳에 정사를 세워 영탑사(靈塔寺)라 하고 머물러 살았다. 당시 탑들의 양식은 대체로 4면 3층 혹은 5층 또는 7층 탑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8면 7층의 탑은 흔치 않은 양식이었다. 그리고 그 탑이 땅속에서 땅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전 시대에 절이 있었던 곳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보덕은 노승이 와서 강론을 청할 만큼 『열반경』에 대해 일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열반경』의 주요 메시지는 1) 보다는 맑은 영원히 머무른다[法身常主], 2) 열반은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하다[涅槃常樂我淨], 3)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선성(善性)의 뿌리를 끊어버려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고 낙인찍혀 온 일천제(一闍提, 斷善根)까지도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해서 보덕의 『열반경』 인식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학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였던 중관학과 삼론학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열반경』은 ‘열반(涅槃)과 불성(佛性)의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덕은 당시 고구려 불교의 주류였던 삼론학에 입각하여 『열반경』의 ‘불성의(佛性義)를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보덕이 『열반경』의 ‘불신상주(佛性相住) 설과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설의 당시 고구려 황실이 도교의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덕은 ‘평등의 진리를 설하는 경전’이자 ‘대승경전의 총칭’인 방등교를 가르쳤다. 일찍이 천태 지의(天台智顗)는 그의 5시 교판에서 『유마경』과 『법천사익소보경』을 방등교로 비정했다. 『유마경』은 인도 갠지스강 중류 북쪽의 상업도시인 바이살리리를 무대로 하고 있다. 『유마경』에서 보다는 32명의 보살들에게 병이 난 유마(維摩)를 위문하기를 차례차례 권유한다. 하지만 보살들은 종래 유마거사에게 수행과 관련된 몇몇 잘못을 호되게 지적당했기 때문에 소임을 다할 수 없다면 사양한다. 마지막으로 권유를 받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상대가 될 만한 주변이 못되지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명령을 받들겠다”며 석존의 성지(聖旨)에 따라 문안을 간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승의 사상에 접하게 한다. 결국 문수보살은 ‘그 어느 것도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하려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알아보려 해도 알아볼 수 없으며,

모든 물음과 답변을 초월하는 것’이 ‘불이의 범문에 들어가는 것’ [入不二法門]이라고 답한 뒤에 유마의 삼립살이를 요청하자 거사는 ‘한번 침묵’ [一默]의 설법을 통해 불이의 범문에 들어가는 도리를 보여준다. 보덕은 ‘말’과 ‘문자’와 ‘마음의 움직임’도 없음을 강조하는 이 경전의 ‘부동의 마음’ [不動心]을 도교로 혼들리고 있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였다.

2. 영탑사의 건립과 영탑학통의 형성

고구려 승랑의 제자들에게 의해 삼론(三論)학통이 형성된 것처럼 보덕 역시 제자들에게 의해 열반(涅槃)학통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덕은 영탑사(靈塔寺)를 지어 머물면서 그곳을 찾아온 이들에게 열반교와 방등교를 가르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는 고대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할 때부터 이미 불교를 통치이념의 근간으로 삼아왔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보덕의 저술이 전해지지 않아 그의 『열반경』 이해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또 『방등경』 인식의 틀도 온전히 확인할 길은 없다. 때문에 보덕의 생각은 그의 삶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재구할 수밖에 없다. 노승에게 강론을 부탁받을 정도로 열반학의 대가였던 보덕은 『열반경』에 입각하여 평등

비래방장은 고구려 승단의 남하 의미

보덕 스님, 일체 중생 실유불성 강조

고구려 삼론학 입각해 열반경 재해석

11명 뛰어난 제자 배출, 총 3000제자 추산

사상을 역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방등부의 대표적 경전인 『유마경』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혔다. 보덕 역시 이 경전들에 근거하여 강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덕은 열반교의 평등사상과 방등교의 불이사상을 부동심으로 표현하여 당시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보덕은 고요한 승원에서 성실학을 비판하며 삼론학을 심화시켜 간 승랑과 달리 위기의 현실 속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의 주요 살림살이가 대승불교의 재가주의를 선양하는 방등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유마경』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설하는 『열반경』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보덕은 선성(善性)의 뿌리를 끊어버려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고 낙인찍혀 온 일천제(一闍提)까지도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는 중국 도생(道生)의 해석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고 재가신도의 종교적 덕목을 선양하는 것을 두드러진 특색으로 삼으며 불교의 대중화를 역설하는 유마거사의 메시지를 그의 주요 살림살이로 삼았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보덕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보덕에게는 11명의 뛰어난 제자[高弟]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금동사(金洞寺)의 무상(無上, 제자 金龜 등), 2) 진구사(珍丘寺)의 적멸(寂滅), 3) 진구사의 의용(義融), 4) 대승사(大乘寺)의 지수(智叟?), 5) 대원사(大原寺)의 일승(一乘, 心正, 大願 등), 6) 유마사(維摩寺)의 수정(水淨), 7) 중대사(中臺寺)의 사대(四大, 契育 등), 8) 개원사(開原寺)의 개원(開原), 9) 연구사(嚴口寺)의 명덕(明德), 10) 처소 미상의 개심(開心), 11) 처소 미상의 보명(普明)이다. 보덕의 뛰어난 제자들이 11명이었다면 실제의 제자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의 제자들이라면 보덕의 열반학은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학풍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보덕의 영탑학통은 중국 남부의 열반학이 끊



보덕 스님 영정 사진. 열반종 종찰 용인 와우정사 제공



전주 고대산의 경복사터.

어진 이후에 형성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것은 고구려 중기 불교사상의 주축이었던 승랑 이래의 섭렵학통이 의연의 계율사상 및 지론사상을 거쳐 보덕에 이르러 열반학과 방등학으로 대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보덕의 저술은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지만 그 제자들 이름이 남겨져 있는 현실을 통해 그의 학문적 성취가 공고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원효의 경우에는 『고선사서대화상비명』에 9명의 뛰어난 제자들의 이름이 보이며, 의상의 경우에도 『삼국유사』 『의상전고』조에는 10명의 제자들 이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3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고구려 사람들은 승랑(僧朗)과 승전(僧詮)이

래 법랑(法朗) 아래의 길장의 문하에서 나온 혜관(慧灌, 慧觀) 등의 삼론학과 의연의 계율사상 및 지론사상 그리고 보덕의 평등사상과 불이사상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3. 반룡사 비래방장과 완산주 경복사

고구려 제27대 영류왕 7년 갑신년(624)에 사람들이 다투어 병을 고치는 가르침의 댓가로 쌀 다섯 말을 주는 오두미교(五斗米敎)를 신봉하였다. 당나라 고조(高祖)가 들고 도사(道士)를 통해 도교의 최고신인 천존상(天尊像)을 보내 『도덕경』을 강론하게 하자 왕과 국민들이 들었다. 다음 해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불교와 도교를 배우려 하자 당나라 고조가 허락하였다. 연개소문에게 독살된 영류왕에 이어 보장왕이 즉위한 뒤 불도유(佛道儒) 삼교를 모두 일으키고자 하였다. 당시 재상이었던 연개소문은 “유교와 불교는 흥성하나 도교는 왕성하지 못하니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왕을 설득하였다. 당시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시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뒤 불교세력을 제거하고 유자(儒者)들 위에 도사(道士)들을 앉히며 도교를 높이 받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나라에게 왕을 시해했다는 명분을 희석하기 위한 외교적 유향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때 보덕학상은 반룡사(盤龍寺)에 있었다. 그는 좌도(左道, 道教)가 들어와 정도(正道, 佛敎)와 맞서면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여 여러 번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신통력으로 방장을 날려 남쪽에 있는 완산주(琿州)의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 갔다. 이때가 영희(永徽) 원년 경술년(650) 6월이었다. 얼마 뒤 고구려는 망하였다(668). 아마도 일연(一然)은 도교의 전신이었다던 오두미교의 도입으로 고구려가 패망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경북사에 남아있는 비래방장은 그때의 방장이라고 한다. 고려 진락공(眞樂公) 이자현(李資玄)이 그를 위해 남긴 시가 당(堂)에 남아 있고, 고려 문열공(文烈公) 김부식(金富軾)이 『보덕화상전』을 지어 세상에 남겼다.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의 보덕이 ‘4방 1장 크기인 방’ [方丈]을 날려왔다는 것은 암자 그 자체를 옮겨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고승이었던 보덕 자신이 고구려를 떠나 백제의 경복사로 옮겨와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 날아와’ [飛來] 머문 방[方丈]을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遼)나라 도종(道宗)의 연호인 대안(大安) 8년 임신년(1092)에 우세승통 의천(義天)이 고대산(孤大山) 경복사(景福寺)의 비래방장에 이르러 보덕성사의 진영(眞影)에 예를 올리고 시를 남겼다. “열반 방등교의 가르침은/ 우리 성사로부터 전수되었네/ 애석하구나, 방장이 날아온 뒤/ 동명왕의 옛 땅이 위태롭게 되었구나.” 의천은 자신의 『묘집』 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고구려의 보장왕은 도교에 현혹되어 불법을 믿지 않으니 보덕법사가 그만 승방을 날려 남쪽의 이 산으로 옮겨 놓았다. 그 뒤 신령스런 사람이 고구려 마령(馬嶺)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일연 역시 보덕을 기리는 시 한 편을 덧붙이고 있다. “불교는 넓디 넓은 바다같이 무궁한데/ 백 갈래의 유교 도교 물을 모두 받아들일네/ 가소롭구나, 고구려 왕은 늙지만 경계했지/ 와룡이 넓고 푸른 바다로 옮겨간 줄 알지 못하네.” 일연은 여기에서 보덕을 ‘와룡’으로 비정하고 유교와 도교의 하천을 받아들이다 넓디 넓은 바다에 노니는 불교의 와룡을 놓친 고구려 왕실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권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모 심인불교대학 집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敎)와 기본교리(基本敎理)는 밀교사상(密敎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 ◆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 ◆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 ◆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 ◆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 ◆ 등록금 : 100,000원
- ◆ 교재비 : 30,000원
-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먼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은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